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

장 한 기[†] · 이 승 준*

(부경대학교 · *운송중학교)

School Comprehensive Evaluation Evaluated by Teachers

*Han-Kee CHANG[†] · Seung-Jun LE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Unsong Middle School*

(Received March 28, 2003 / Accepted May 31, 2003)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teachers evaluate the School Comprehensive Evaluation administered by KEDI from 2000 to 2001.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ement of the School Comprehensive Evaluation, the following six questions were asked:

1. What are the teachers' evaluations of the School Comprehensive Evaluation?
2. What are the teachers' evaluations of the operation of the School Comprehensive Evaluation?
3. What are the teachers' evaluations of the results of the School Comprehensive Evaluation?
4. What are the teachers' evaluations of the effects of the School Comprehensive Evaluation?
5. What are the teachers' opinions regarding the problems of the School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solutions to them?
6. What are the teachers' evaluations of the open classrooms and evaluators?

[†] Corresponding author : 051-620-6163, hkchang@pknu.ac.kr

36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eachers who had been working at the Busan and Ulsan Metropolitan City schools taken the School Comprehensive Evaluation, and 258 questionnaires were processed by a SPSS WIN.

The followings ar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1. The teachers evaluated the School Comprehensive Evaluation to be more desirable compared to the usual School Evaluation.
2. They recognized the need for preliminary training with extended time about the School Comprehensive Evaluation. They evaluated that the procedure and area of the evaluation were quite valid.
3. They evaluated the evaluation reports were objective but not leading changes in the respective schools.
4. The School Comprehensive Evaluation did not much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schools.
5. Stress from interview and class observation was the major problem to the teachers.
6. The teachers did prepare for their open classes, but highly evaluated the evaluator's professionalism.

Key words : School Comprehensive Evaluation, School Evaluation, Stress from Evaluation

I . 서 론

학교평가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가 신교육체제의 수립을 지향하는 교육개혁 방안의 주요과제중의 하나로 제시한 이후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996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학교평가는 개별 학교가 처한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에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교교육의 자율성 신장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진동섭, 2001, p. 69)과 함께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인호 외, 1998, p. 4).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국가 차원의 학교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와 한국적 상황에서 적합할 수 있는 학교평가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학교종합평가 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미래지향적인 상호정보제공형 모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그 실천적 적합성과 학교평가의 효과를 검증(곽병선, 2000, p. 7) 하려는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2000년에 16개 초·중등학교가, 2001년에는 사후평가 16개 학교를 포함하여 48개 초·중등학교가 참여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01a, p. 8). 이렇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0년부터 시행한 시범적 학교종합평가는 우리 교육현장 상황에 적합한 학교평가 모형의 탐

색과 학교평가의 기반 조성, 그리고 학교평가 기능의 강화 방안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상당부분 긍정적인 면을 제시하고 있다. 즉, 종래의 학교평가와는 달리, ① 평가 결과에 따라 서열화 되고 보상이 연계되는 평점 위주의 평가에서 탈피하고, ② 학교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어 교육활동의 장점은 살리고 잠재력을 현실화하며, ③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평가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학교평가의 새로운 방향과 교육 경쟁력 제고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정원구, 2001, p. 197).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의 실체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의 참여자들로부터의 feed back 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도부터 2년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이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던 국가수준의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어떠한지를 조사·분석하여 학교종합평가의 정착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 아래의 여섯 가지 이다.

첫째, 학교종합평가 그 자체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종합평가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셋째, 학교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넷째, 학교종합평가 성과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다섯째, 학교종합평가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여섯째, 공개수업 및 평가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학교평가

학교는 교육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조직이다. 따라서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곧 학교교육의 성과와 직결되는 문제라 하겠다(김성렬, 1995). 더구나 앞으로의 학교교육은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내용을 학교현장에 제공하여 학생 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조성일·안세근, 1998). 따라서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학교평가는 필요하다.

유현숙(1998)은 학교평가가 첫째, 학교교육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 제고, 둘째, 학교교육의 질 또는 효과성의 증진, 셋째, 학교의 현황을 점검하여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였다(pp. 36-38). 이인효 외(1998)는 학교평가의 목적을 본질적 목적과 수단적 목적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본질적 목적은 학교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여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수단적 목적은 학교평가의 결과를 학교교육 관계자들이 더욱 분발하도록 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들을 포괄하여 박병선(2000)은 학교평가는 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학교 내의 활발한 정보 교류를 유도하고, 학교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였다.

학교평가 영역 선정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틀은 투입-과정-산출에 관한 체제적 접근 방식과 통상적인 학교경영 관련 영역에 따른 구분, 목표 지향적인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이다(유현숙 외, 1996). 체제적 접근 방식으로 오진석과 최윤도(1987)는 투입, 과정, 산출에 관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학교평가 영역을 ①교육목표 및 계획, ②교과지도, ③생활지도, ④특별활동지도, ⑤학교·학급 풍토, ⑥교직원 인사, ⑦시설 및 매체관리, ⑧재무관리, ⑨대외관계의 9개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유현숙(1998)도 학교를 하나의 체제로 간주하여 평가 영역을 투입요인, 과정요인, 그리고 산출요인으로 구분한 체제적 접근 모형에 따라 투입요인으로서의 ①학교 교육 목표 및 계획, 과정요인으로서의 ②교육과정 편성·운영, ③생활 및 진로지도, ④교직원 관리, ⑤학교운영 관리, 산출요인으로서 ⑥학교성취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학교자체평가는 학교의 교육계획, 실천, 결과 등의 전 과정에 따라 평가활동이 이루어진다. 즉 계획단계에서는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이를 환류(feed back)시켜 교육목표, 경영목표, 경영방침 또는 활동계획 등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실천단계에서는 계획단계에서 수립한 교육활동들이 예정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학교운영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평가는 학년도 말에 이루어지는 최종평가 활동을 의미한다. 이 평가의 궁극적 목표는 학교운영에서의 문제 또는 개선해야할 점을 발견하여 다음 학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오진석·최윤도, 1987).

학교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학교평가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는 것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서정화 외(1988)는 효과적인 결과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 모든 교직원이 평가보고서를 숙지하도록 한다.

둘째, 평가 결과를 새로운 계획과 경영 과정에 환류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셋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협동해서 단시일 내에 실행에 옮긴다.

넷째, 경영상 드러난 단점에 실망하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조직 풍토 조성과 사기 앙양책을 강구한다.

다섯째, 시정 조치는 계획적으로 단계에 따라 수행한다.

여섯째,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교직원이나 학생, 관련 인사에게는 시상과 감사의 의사 전달을 하여야 한다.

일곱째, 학교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경영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현숙 외(1997)에 의하면, 학교평가 결과는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및 경영체제 개선 그리고 교육행정기관의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활동에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학교가 스스로 자율 책임 하에 그 소임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수 있는 개선 자료의 제공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엄밀히 분석, 검토하여 교사 자신들의 반성자료로, 다음 교육을 위한 지도자료로, 다음 학년의 교육계획 수립에 적극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

<표 1> 현행 학교평가의 문제점 분석

주요항목	문 제 점
평가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평가에 대한 사전의 학문적 연구와 이해가 부족했고,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못했으며, 실시 여건 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곽병선 2000, 백순근 2002) · 학교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공감대가 부족함 (유현숙 1998, 박종렬 1998) · 평가 목적 및 목표가 불명확함 (백순근 2002, 구관서 2000) · 감사나 장학지도와 혼란 (백순근 2002)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내용이 획일적이고 시책중심이어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 (정태범 1998, 유현숙 1998) · 평가 내용이 임시적이고, 제한된 평가과제가 많음 (유현숙 1998, 백순근 2002) · 학교별 특성을 살리는 평가기준 개발이 곤란함 (박종렬 1998) · 학교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 (박종렬 1998) · 평가 영역과 과제가 많고 평가준거가 획일적이며 편람의 내용이 모호하여 자율성을 저해함 (유현숙 1998, 구관서 2000) · 과제 선정 이유나 배점의 근거가 미비함 (백순근 2002)
평가 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편의 위주의 평가로 학교 운영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함 (정태범 1998) · 학교자체평가와 외부기관평가의 연계성이 결여됨 (정태범 1998) · 일시적이고 획일적인 상대평가에 기초한 평가임 (박종렬 1998, 유현숙 1998) · 지나친 양적평가 위주로 질적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다양한 평가기법 활용이 요구됨 (유현숙 1998, 정태범 1998, 이인호 외 1998) · 현장방문평가가 짧은 시간 내 이루어져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짐 (유현숙 1998, 강태중 2000, 이인호 외 1998, 백순근 2002) · 교육청마다 평가 영역, 기준, 절차가 달라서 국가 수준에서 학교교육의 질을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없음 (이인호 외 1998) · 학교평가에 대한 준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 교사들의 근무 부담이 늘어남 (진동섭 2001, 강태중 2000, 이인호 외 1998)
평가 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행정적 상급기관인 시·도교육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되어 일선 학교에 불안감을 줌 (진동섭 2001) · 과열경쟁으로 인해 시·교육청간 의사소통이 단절됨 (백순근 2002) · 학교교육의 강점·약점·개선점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해 교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이인호 외 1998) · 학교평가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결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됨 (이인호 외 1998) ·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함 (이인호 외 1998) · 국가수준에서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려움 (이인호 외 1998)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평가는 정부의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각인하는 효과를 발휘했을 수 있다(김광조, 1997, p. 26). 서정화(2000)는 그 간의 학교평가 사업을 통해 ①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②교육개혁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③종합적인 학교경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④학교 구성원의 기획·실천·평

가 능력을 개발하고, ⑤단위학교 혁신활동을 확산하고, ⑥학교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가미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학교평가를 통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일선학교에 확산, 착근 시키고자 했던 목적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평가의 본래 목적인 학교 운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한 '책무성 제고'와 '교육의 질적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 학교평가 실시를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그 필요성과 목적이 공감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교육개혁 과제를 실시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는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에게 실적 정리 위주의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교육활동과 자신이 속한 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되돌아보는 경험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는 것이다. 또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부재하거나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진동섭, 2001; 광병선, 2000; 강태중, 2000; 이인호, 1999; 박종렬, 1998; 정태범, 1998; 유현숙, 1998; 백순근, 2002; 구관서, 2000).

현행 학교평가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평가 목적, 평가 내용,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결과 활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앞의 <표 1>과 같다.

2. 학교종합평가

지난 1996년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일환으로 시·도 교육청 주관의 학교평가가 실시되었고, 1997년 12월에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2항(1997. 12. 13)에 국가 수준의 학교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1998년 2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학교평가의 대상, 학교평가의 기준이 각각 명시되었다. 또, 그 해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 과제로 학교평가가 채택되었고, 1999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서 학교종합평가 실시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2000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학교종합평가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총16개교에 국가 수준의 시범적 학교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2001년에는 현장방문평가 32개교, 사후평가 16개교(1차년도 시범평가학교 대상)를 포함하여, 총48개교에 대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학교평가 관계자 연찬, 학교평가위원 연수 프로그램·교재 개발 및 연수, 학교평가 홈페이지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01a).

이러한 학교평가 추진 과정을 통해 학교평가 체제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진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교육청평가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주관의 학교평가와 대규모 현장방문 평가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종합평가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 학교평가 유형은 주관 부서와 평가단의 규모가 다르다는 점 외에 양적 평가 위주와 질적 평가 위주라는 평가방법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 주관의 학교평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종합평가의 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은 상태이다(김승호, 2001).

그런데 학교평가는 어떠한 평가 기준에 학교가 얼마만큼 도달했는지를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판정하여 학교에 상을 주거나, 인정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등의 통제 목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의 상황을 그 학교의 맥락에서 이해하여 학교가 지니는 강점과 약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줌으로써 학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해야만 한다(김정원, 2001). 그런 점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종합평가는 학교평가의 새로운 접근이란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종합평가에 적용된 평가모형은 우리나라 상황이 갖는 특성에 유의하면서 교육이 갖는 총체적이고도 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를 평가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의 특징은 해당 학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학교 개선을 위한 제언과 함께 질적으로 기술하여 보고한다는 데 있다.

이 학교평가모형은 상호정보제공형이라고 명명되었다. 이는 학교평가의 전 과정이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학교와 평가자 사이의 정보 교류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이 학교평가모형의 목적, 방향, 영역 및 기준, 방법, 결과 활용 등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한국교육개발원, 2001a; 한국교육개발원, 2001b; 한국교육개발원, 2001c; 한국교육개발원, 2002).

이 학교종합평가의 목적은, (가) 단위학교 개선 노력 지원, (나) 국가수준의 학교교육의 질 점검 및 학교교육정책 효과 진단, (다) 학교 내외의 적극적 정보 교류 등이다.

학교종합평가의 방향은, (가) 교육평가 차원에서의 학교평가, (나) 학교의 본질적 목적 차원의 평가기준 설정 (즉 “학교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과와 교과 외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가 최종 평가기준), (다) 교육활동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영역 구분, 영역별 기준 설정, (라) 평가기준을 구체화한 하위 평가기준·평가항목 설정, (마) 구성원의 관점을 평가하며, 평가자의 관점도 분명히 제시, (바) ‘대화’로서의 학교평가, (사) 학교 내외적 조건을 고려한 평가, (아) 단위학교의 특성을 드러내는 평가요소 추출 적용 가능 등이다.

학교의 활동은 학생의 학습경험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그러한 학습경험이 학교차원에서 선정되고 조직되며 일어나도록 하는 제반 조건을 이루는 교육지원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과 교육지원활동의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가정하고 있다. 첫째, 학교의 기본적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과/교과 외’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목적·인적자원들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의 지도성은 이를 위해 발휘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에 기반 하여 평가영역과 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설정되었다.

첫째, 평가영역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한 영역의 평가는 다른 영역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평가기준은 같은 영역의 다른 기준, 다른 영역의 기준들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학교종합평가의 방법은 (가)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질적 평가로서, 설문조사자료, 문서자료, 면담자료, 관찰자료 등이다. 기존의 학교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문서자료들이 이 평가모형에서는 극히 제한된 비중만을 차지한다. (나) 최소 5~6일(30학급 규모)간의 현장방문평가 포함하며, (다) 자료와 판단의 공유, (라) 평가결과의 질적 기술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 학교평가는 무엇이 학교의 강점과 약점이고 왜 그런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기준에 대한 판단

과 그 근거를 자세한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한다.

이 평가 결과는 (가) 학교교육계획 수립, (나) 학교 내 구성원들의 활발한 정보교류, (다) 학교와 학교 밖의 적극적인 소통, (라) 지역·국가 수준의 학교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에 활용된다.

학교종합평가의 문제점을 유근상(2001)은 다섯 가지로 들었다. 첫째, 학교종합평가 사업 추진 체계 불안정, 둘째, 대상 학교 선정의 어려움, 셋째, 질 높은 평가위원 확보에 따른 어려움, 넷째,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미흡, 다섯째, 학교평가 결과의 미공개에 따른 올바른 정보 제공 미흡, 여섯째, 시·도교육청 주관의 학교평가와 중복에 따른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네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 수준의 학교평가 시행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둘째, 학교평가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과 극대화를 위한 평가담당 기구의 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셋째, 질 높은 평가위원 확보 체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넷째, 학교정책과 학교종합평가와의 직접적인 연계 체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표 2> 기존의 학교평가와의 차이점 분석

주요항목	기존의 학교평가	학교종합평가
목적 및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감독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봄 ·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점수화, 계량화하고자 하는 하향적 평가 ·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점검하는 관점에 주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교육의 동반자이자 대화의 상대로 봄 ·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배우는 수평적 평가 · 학교교육의 질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에 주력함
내용 및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점 위주의 평가 준거에 의한 계량화된 자료 중심의 학교 실적 평가 · 교육 개혁 및 정책 확인 평가 · 학교 내외적 조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의 본질적 목적 차원에서 최종 평가 준거를 설정한 교육활동에 대한 과정 평가 · 학교의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진단 · 학교 내외적 조건과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위주의 양적 평가 · 1일의 짧은 현장방문평가 ·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질적 평가 · 장기간의 현장방문평가 · 자료와 판단의 공유 · 평가 결과의 질적 기술
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계획서 수립자료로 활용 · 평가 결과에 따라 자구노력비 차등 지원 · 우수 사례 발굴 및 일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계획 수립에의 활용 · 학교 내 구성원들의 정보교류 · 학교 내외 적극적인 의사소통 · 지역·국가수준의 학교교육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이상과 같이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종합평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기존의 학교평가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양한 교육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현장방문평가의 과정에서 평가단 내의 협의와 자료 공유를 강조함으로써 일선의 교사, 학교경영자, 관리자, 학

자들 사이의 상호 의사소통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평가단이 학교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학교를 감독이나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교육의 동반자이자 대화의 상대로 간주하였다.

또, 질적 자료 중심의 평가, 충분히 긴 5-6일간의 현장방문평가, 면담과 관찰로 대화 중심의 평가 등을 통해 기존의 평가와는 다른 접근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평가가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점수화, 수량화하고자 하는 하향적 평가였다면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종합평가는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배우는 수평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곽병선, 2001).

그리고, 학교종합평가는 우리의 학교들이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학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돕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외형적 성과가 아니라 본질적 교육 활동을 중시하는 평가를 추구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서열화하고 그에 따라 보상이나 문책이 주어지는 기존의 학교평가와는 달리, 단위 학교의 현 상황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가이다(이상갑, 2001). 이러한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표 2>과 같다.

Ⅲ.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던 학교종합평가에 대하여 그 당시에 해당학교에 근무하면서 평가를 받았던 교사들이 학교종합평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survey)이다.

<표 3> 조사대상의 배경 변인별 구성 현황

구 분	변 인	사례수(명)	구성비(%)
성 별	남 자	148	57.4
	여 자	110	42.6
현재직위	교장·교감	10	3.9
	부장교사	57	22.1
	교사	191	74.0
교육경력	10년이하	44	17.0
	11-20년	135	52.3
	21년이상	79	30.6
학교급	초등학교	52	20.2
	중학교	72	27.9
	고등학교	134	51.9
학교소재지	부산광역시	144	55.8
	울산광역시	114	44.2
종합평가 시 공개수업 여부	공개	93	36.0
	비공개	165	64.0
전 체		258	100.0

다. 연구대상은 시범적 학교종합평가를 받은 전국 48개교 중에서 부산광역시 소재 초·중·고 각 1개교씩 3개교, 울산광역시 소재 초·중·고 각 1개교씩 3개교, 총 6개교에서 당시 학교종합평가를 받은 교사 전체였다. 따라서 당해 학교들에 2002년 이후에 전입되어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제외시켰다. 2002년 4월 3일부터 4월 26일까지 당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부하고, 전출간 교사들에 대해서는 우편을 이용하여 질문지를 발송하였다. 조사대상의 배경 변인별 구성 현황은 <표 3>과 같다.

이렇게 총 36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278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77.2%),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부적절하게 작성된 20부를 제외하고, 258부(71.7%)를 SPSS WIN을 이용하여 각 문항의 응답 결과에 대한 빈도와 그에 따른 백분율(%)을 구하고, 성별, 직위별, 경력별, 학교급별, 학교소재지별, 공개수업여부별로 집단 간 차이에 대해서 χ^2 (Chi-Square)검증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연구자들이 작성한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교사의 평가에 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구성 내용은 학교종합평가 자체에 대한 질문 4문항, 운영에 대한 질문 7문항, 결과에 대한 질문 9문항, 성과에 대한 질문 3문항,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 3문항, 공개수업 및 평가위원회에 대한 질문 5문항, 총 6개 영역 3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영역별 문항 구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질문지 영역 및 문항 내용

영역	문항 내용	문항 수	문항번호
1. 종합평가 자체에 대한 평가	학교종합평가의 필요성	4	1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한 이해 정도		2
	기존의 학교평가와의 비교		3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준비		4
2. 운영에 대한 평가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	7	5
	필요한 연수 시간		6
	학교종합평가의 일정		7
	학교종합평가의 규모		8
	평가 방법의 타당성		9
	평가 영역, 기준, 항목의 타당성		10
	학교종합평가 주관 기관		11
3. 결과에 대한 평가	학교종합평가보고서 탐독 여부	9	12
	학교종합평가보고서의 객관성		12-1
	장점과 약점의 진단 정도		12-2
	평가 후 교사들의 인식 변화		13
	평가 후 학교의 변화		14
	평가 후 가장 변화된 부분		14-1
	교수·학습 방법 변화 시도		15
	평가 결과 공개 방법		16
	평가 결과의 활용		17
4. 성과에 대한 평가	학교 질적 개선에의 성과	3	18
	교육정책 효과 진단에의 성과		19
	학교 내외 구성원들 정보 교류에의 성과		20
5.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학교종합평가의 문제점	3	21
	학교종합평가의 개선방안		22
	질 높은 평가위원 확보 방안		23
6. 공개수업 및 평가위원회에 대한 평가 (공개수업교사만 해당)	공개수업 준비	5	24
	공개수업의 부담감		25
	평가위원과의 공감 정도		26
	평가위원의 전문성		27
	평가위원 전문성에 대한 요구		28

IV. 결과 및 해석

1. 학교종합평가 자체에 대한 평가

첫째, 학교종합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필요하다”에 9.3%, “상당히 필요하다”에 48.4%로 응답하여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57.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거의 필요없다”에 38.4%, “전혀 필요없다”에 대해서는 3.9%로 낮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교장·교감(90.0%), 부장교사(68.4%), 교사(52.9%)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5>.

<표 5> 학교종합평가의 필요성

[단위: 명, ()는 %]

집단	변인	매우 필요하다	상당히 필요하다	거의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계	χ^2
성별	남자	19(12.8)	73(49.3)	53(35.8)	3(2.0)	148(100.0)	8.374 *
	여자	5(4.5)	52(47.3)	46(41.8)	7(6.4)	110(100.0)	
현재 직위	교장·교감	4(40.0)	5(50.0)	1(10.0)	0(0.0)	10(100.0)	17.909 *
	부장교사	5(8.8)	34(59.6)	17(29.8)	1(1.8)	57(100.0)	
	교사	15(7.9)	86(45.0)	81(42.4)	9(4.7)	191(100.0)	
교육 경력	10년이하	5(11.4)	20(45.5)	16(36.4)	3(6.8)	44(100.0)	13.676 *
	11-20년	9(6.7)	58(43.0)	61(45.2)	7(5.2)	135(100.0)	
	21년이상	10(12.7)	47(59.5)	22(27.8)	0(0.0)	79(100.0)	
학교 급별	초등학교	4(7.7)	28(53.8)	18(34.6)	2(3.8)	52(100.0)	7.554
	중학교	7(9.7)	35(48.6)	24(33.3)	6(8.3)	72(100.0)	
	고등학교	13(9.7)	62(46.3)	57(42.5)	2(1.5)	134(100.0)	
학교 소재지	부산광역시	14(9.7)	74(51.4)	51(35.4)	5(3.5)	144(100.0)	1.522
	울산광역시	10(8.8)	51(44.7)	48(42.1)	5(4.4)	114(100.0)	
공개 여부	공개	10(10.8)	47(50.5)	33(35.5)	3(3.2)	93(100.0)	.934
	비공개	14(8.5)	78(47.3)	66(40.0)	7(4.2)	165(100.0)	
계		24(9.3)	125(48.4)	99(38.4)	10(3.9)	258(100.0)	

* p< .05

χ^2 검증 결과 집단간 성별, 직위별, 경력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교사가 62.1%로 여교사(51.8%)보다 필요성에 대해서 높게 응답하였고, 직위별로는 교장·교감 90.0%, 부장교사 68.4%, 평교사 52.9%의 순으로 응답하여 교장·교감이 가장 높게 반응하였고, 경력별로는 21년 이상 교사 72.2%, 10년 이하 교사 56.9%, 11-20년 교사 49.7%의 순으로 응답하

여 21년 이상 교사가 가장 높게 반응하였고, 또 21년 이상 교사, 10년 이하 교사가 상당히 “필요하다”에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11-20년 사이의 교사는 “거의 필요없다”에 가장 높게 응답하여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11-20년 사이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업무나 수업 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교사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여 시행하였던 시범적 학교종합평가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교사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교사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그 동안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교육 개선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교사들에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교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심리적인 저항감, 관심 부족이 상존하고 있어서, 학교 개선과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학교평가가 필요한 요소임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수와 홍보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학교종합평가의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한 이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에 17.1%, “상당히 이해하고 있다”에 57.0%로 응답하여 전체의 74.1%가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에 25.2%,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에 0.8%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교장·교감의 100.0%, 부장교사의 89.5%, 교사의 68.1%가 “잘 이해하고 있다”와 “상당히 이해하고 있다”에 응답하여 직위가 높을수록 이해도가 높았다.

이렇게 교사들이 학교종합평가의 목적과 내용,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연수와 홍보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기존의 학교평가보다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에 6.6%, “상당히 바람직하다”에 50.0%로 응답하여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56.6%가 기존의 학교평가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거의 바람직하지 않다”에 39.9%,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에 대해서는 3.5%로 응답하여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직위가 높을수록 학교종합평가가 기존의 학교평가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학교종합평가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였다”에 6.6%, “평소보다 더 준비하였다”에 59.3%로 응답하여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65.9%가 준비하였다고 하였고, “평소처럼 부담 없이 했다”에는 34.1%가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학교종합평가를 대비해 평소보다 더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부장교사가 교장·교감이나 평교사보다, 경력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교사보다, 또 수업을 공개한 교사가 공개하지 않은 교사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과반수를 넘는 교사들은 학교종합평가가 기존의 학교평가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1996년 이후 학교평가를 시행해 오면서 발생하였던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학교종합평가 모형이 단위학교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에 보다 부합되도록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종합평가에 대비하여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

는 학교종합평가의 취지는 평가를 대비한 특별한 준비를 요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대비하여 준비에 노력을 기울여 온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종합평가 자체에 대한 평가는 교장·교감 및 부장교사가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고 긍정적이며, 특히 부장교사가 준비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운영에 대한 평가

첫째,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홍보와 사전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에 14.3%, “상당히 필요하다”에 55.0%로 응답하여 전체의 69.3%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거의 필요없다”에 28.7%, “전혀 필요없다”에 대해서는 2.0%로 응답하여 낮은 반응을 보여,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사전 연수가 필요하다고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χ^2 검증 결과, 배경변인별로 집단간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표 6>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

[단위: 명, ()는 %]

집단	변인	매우 필요함	상당히 필요함	거의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계	χ^2
성별	남자	18(12.2)	80(54.1)	47(31.8)	3(2.0)	148(100.0)	2.369
	여자	19(17.3)	62(56.4)	27(24.5)	2(1.8)	110(100.0)	
현재 직위	교장·교감	4(40.0)	5(50.0)	1(10.0)	0(0.0)	10(100.0)	15.248
	부장교사	13(22.8)	33(57.9)	11(19.3)	0(0.0)	57(100.0)	
	교사	20(10.5)	104(54.5)	62(32.5)	5(2.6)	191(100.0)	
교육 경력	10년이하	5(11.4)	23(52.3)	15(34.1)	1(2.3)	44(100.0)	6.652
	11-20년	15(11.1)	76(56.3)	42(31.1)	2(1.5)	135(100.0)	
	21년이상	17(21.5)	43(54.4)	17(21.5)	2(2.5)	79(100.0)	
학교 급별	초등학교	11(21.2)	27(51.9)	14(26.9)	0(0.0)	52(100.0)	7.769
	중학교	13(18.1)	41(56.9)	16(22.2)	2(2.8)	72(100.0)	
	고등학교	13(9.7)	74(55.2)	44(32.8)	3(2.2)	134(100.0)	
학교 소재지	부산광역시	23(16.0)	80(55.6)	38(26.4)	3(2.1)	144(100.0)	1.254
	울산광역시	14(12.3)	62(54.4)	36(31.6)	2(1.8)	114(100.0)	
공개 여부	공개	13(14.0)	45(48.4)	34(36.6)	1(1.1)	93(100.0)	4.887
	비공개	24(14.5)	97(58.8)	40(24.2)	4(2.4)	165(100.0)	
계		37(14.3)	142(55.0)	74(28.7)	5(2.0)	258(100.0)	

학교종합평가에 필요한 연수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이내에 24.8%, 1-2시간에 46.9%, 3-4시간에 21.3%, 5-6시간에 3.5%, 7-8시간에 3.5%가 응답하였고, 고등학교 집단이 초, 중학교 집단에

비하여 '1시간 이내' 와 1-2시간의 연수를 더 선호하였다. 이는 교사들이 학교종합평가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71.7%가 2시간 이내의 연수를 선호하여 많은 시간의 연수는 원하지는 않았다.

둘째, 현장방문평가의 기간에 대해 3박4일에 46.5%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5박6일에 28.7%, 4박5일에 19.0%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외 6박7일 이상에는 5.8%만이 응답하였다. 변인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평가단의 인원 에 대해서는 7-8명에 52.7%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9-10명에 28.7%, 11-12명에 13.6%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13-14명에는 5%이었다. 중학교 집단이 7-8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학교종합평가의 일정은 현행 5박6일보다 단축된 3박4일에 대한 선호가 절반에 가까워서 가장 많았고, 규모는 현행 9-11명보다 적은 7-8명에 대한 선호가 과반수를 넘었다. 이는 교사들이 현장방문평가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과 방문평가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가지는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교종합평가의 일정과 규모의 축소를 고려할 만하다.

셋째, 평가 방법은 어느 정도 타당한가에 대해 "매우 타당하다"에 2.7%, "상당히 타당하다"에 58.5%로 응답하여 긍정적 반응이 61.2%하였고, "거의 타당하지 않다"에 35.7%, "전혀 타당하지 않다"에 3.1%이었다.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서 평가방법이 타당하다고 반응한 비율이 높았다.

평가영역, 기준, 항목의 타당성에 대해 "매우 타당하다"에 4.7%, "상당히 타당하다"에 67.4%로 응답하여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72.1%가 타당하다고 응답하였고, "거의 타당하지 않다"에 26.7%, "전혀 타당하지 않다"에 1.2%가 응답하였다. 교장·교감, 부장교사가 평교사에 비해서 타당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앞으로의 학교종합평가 주관 기관에 대해, 자율적인 별도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에 35.3%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한국교육개발원 34.5%, 새로운 학교평가기관 17.4%, 평가전문기관 12.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평가방법, 평가영역과 기준, 항목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종합평가에서 이루어진 질적 자료 중심의 평가, 5-6일간의 현장방문평가, 자료와 판단의 공유, 면담과 관찰을 통한 대화 중심 평가 등이 기존의 학교평가에서 사용한 문서 중심의 평가, 수량적 접근방식의 양적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상당히 해소하고 개선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앞으로 학교종합평가의 주관 기관으로는 현재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학평가처럼 초·중등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초·중등학교협의회와 같은 별도의 자율적인 평가기관, 그리고 그 동안의 학교평가에 대한 연구와 모형 개발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을 선호하였는데, 향후 평가 주관 기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결과에 대한 평가

첫째, “학교종합평가 보고서는 어떻게 읽어보았는가”에 대해 “전부 꼼꼼하게 읽어보았다”에 15.9%,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았다”에 55.4%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대충 읽어보았다”에 24.0%, 그리고 “읽어보지 않았다”에 4.7%의 반응을 보여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교종합평가 보고서를 읽어보았다고 하였다.

χ^2 검증 결과, 집단간 직위별, 학교급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장·교감의 70.0%가 꼼꼼하게 읽어 본 반면, 부장교사의 57.9%와 평교사의 56.0%는 필요한 부분만 읽어보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교장·교감들이 학교종합평가 보고서를 통해 해당학교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교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가 부장교사나 평교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는 “꼼꼼하게 읽어보았다”(23.1%)와 “읽어보지 않았다”(11.5%)에 중, 고등학교 교사 보다 높은 반응을 보여 집단 내에서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표 7> 학교종합평가 보고서 숙독 여부

[단위: 명, ()는 %]

집단	변인	전부 꼼꼼히 읽어봄	필요한 부분만 읽어봄	대충 읽어봄	읽어보지 않음	계	χ^2
성별	남자	30(20.3)	78(52.7)	34(23.0)	6(4.1)	148(100.0)	5.081
	여자	11(10.0)	65(59.1)	28(25.5)	6(5.5)	110(100.0)	
현재 직위	교장·교감	7(70.0)	3(30.0)	0(0.0)	0(0.0)	10(100.0)	30.140 *
	부장교사	13(22.8)	33(57.9)	9(15.8)	2(3.5)	57(100.0)	
	교사	21(11.0)	107(56.0)	53(27.7)	10(5.2)	191(100.0)	
교육 경력	10년이하	3(6.8)	25(56.8)	12(27.3)	4(9.1)	44(100.0)	12.312
	11-20년	20(14.8)	71(52.6)	39(28.9)	5(3.7)	135(100.0)	
	21년이상	18(22.8)	47(59.5)	11(13.9)	3(3.8)	79(100.0)	
학교 급별	초등학교	12(23.1)	27(51.9)	7(13.5)	6(11.5)	52(100.0)	15.737 *
	중학교	8(11.1)	47(65.3)	15(20.8)	2(2.8)	72(100.0)	
	고등학교	21(15.7)	69(51.5)	40(29.9)	4(3.0)	134(100.0)	
학교 소재지	부산광역시	20(13.9)	84(58.3)	37(25.7)	3(2.1)	144(100.0)	6.315
	울산광역시	21(18.4)	59(51.8)	25(21.9)	9(7.9)	114(100.0)	
공개 여부	공개	17(18.3)	54(58.1)	17(18.3)	5(5.4)	93(100.0)	2.871
	비공개	24(14.5)	89(53.9)	45(27.3)	7(4.2)	165(100.0)	
계		41(15.9)	143(55.4)	62(24.0)	12(4.7)	258(100.0)	

* $p < .05$

둘째, 학교종합평가 보고서의 객관성에 대해 “매우 객관적이다”에 5.7%, “상당히 객관적이다”에 76.0%로 응답하여 전체의 81.7%가 객관성을 인정하였고, “거의 객관적이지 않다”에 17.9%,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에 대해서는 0.4%만이 반응을 보였다.

“매우 객관적이다”에는 남자교사(5.6%)과 여자교사(5.8%)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상당히 객관적이다”에는 남자교사의 81.7%, 여자교사의 68.3%가 응답하여 남자교사가 여자교사에 비해서 객관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교종합평가 보고서에는 학교의 장점과 약점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가에 대해 “매우 잘 나타났다”에 5.7%, “상당히 나타났다”에 71.5%로 응답하여 전체의 77.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에 22.4%,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에 대해서는 0.4%만이 반응을 보였다.

교사들이 학교종합평가 보고서가 상당히 객관적으로 서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결과 보고서에 해당학교의 장점과 약점이 대체로 잘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평가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셋째, “학교종합평가 후 학교평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는가”에 대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에 3.9%,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에 70.5%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에 74.4%의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상당히 달라졌다”는 24.8%, “매우 달라졌다”는 0.8%이었다. 교장·교감의 70%가 상당히 달라졌다고 하는 데 비해서 부장교사의 72.0%, 교사의 77.5%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학교종합평가 후 학교가 변화되었는가”에 대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에 8.9%,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에 70.2%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79.1%의 높은 반응을 보였고, “상당히 달라졌다”는 20.2%, “매우 달라졌다”는 0.8%에 그쳤다. 교장·교감 집단이 “상당히 달라졌다”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에 각각 50%씩 응답한데 비해서 부장교사의 75.4% 교사의 81.6%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렇게 학교종합평가 후 교사들의 인식 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평가 후 학교 현장의 변화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일선학교에서 학교 개선을 위한 평가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점, 그리고 학교 구조적인 문제, 특히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할 수 없다’라는 무력증이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사후평가를 통한 컨설팅 사업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장·교감 집단이 여타 집단에 비해서 “달라졌다”는 인식을 더 많이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 없이는 추론하기 어렵다.

넷째, “학교종합평가 후 어떤 부분이 가장 변화되었는가”에 대해 “학교경영 효율성 제고”에 45.5%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교수·학습 질 개선” 29.8%,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14.9%, “(개별) 학교의 독특한 문제점 해소” 6.4%, “교직원 전문성 향상” 3.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변인간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학교종합평가를 계기로 교수·학습 방법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다” 5.0%, “상당히 노력할 생각이다” 66.3%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이 71.3%이었으며, “거의 노력할 생각이 없다” 25.6%, “전혀 노력할 생각이 없다”에 대해서는 3.1%의 낮은 반응을 보였다. 변인간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평가 후 가장 변화된 부분은 학교경영 효율성 제고와 다음으로 교수·학습 질 개선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수·학습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에 대해서 가장 좁은 범위인 “해당학교 교직원에게만 공개한다”에 45.7%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모든 학교 교직원에게 공개한다” 24.8%, “해당학교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16.7%, “완전히 공개한다” 12.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해당학교 교직원에게만 공개한다”에 여자교사(59.1%)가 남자교사(35.8%)에 비해서 더 선호하였고, 초등학교 교사(65.4%), 중학교 교사(55.6%), 고등학교 교사(32.8%)의 순으로 가장 좁은 공개범위를 선호하였다.

“모든 학교 교직원에게 공개”와 “완전공개”를 합하여 넓은 공개범위를 선택한 것은 고등학교 교사 45.6%, 중학교 교사 28.2%, 초등학교 교사 28.8%이어서 중학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완전공개에는 고등학교 교사의 17.2%, 중학교 교사의 12.5%, 초등학교 교사의 1.9%가 응답하여,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순으로 개방성을 나타내었다.

물론 학교에 대한 평가제도가 아직도 생소한 상황에서는 평가결과의 적극적인 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가 우세할 수도 있지만,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한 개선 노력이 뒤따르지 아니한다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학교평가는 그 만큼 의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평가는 학교평가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결과 공개와 다양하고 체계적인 활용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종합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해서 여자교사가 남자교사에 비해서 더 소극적이고,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소극적이고 고등학교 교사가 가장 개방 지향적인 이유를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면 평가 결과를 보다 공개적으로 논의, 검토하여 교육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종합평가 결과의 바람직한 활용에 대해서, “학교경영 교육과정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에 64.7%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학교교육 정책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에 19.0%로 응답하였고, “학교교육계획 수립” (8.1%), “구성원 정보 교류” 8.1%로 나타났다. 수업을 공개했던 교사의 74.2%가 “학교경영 교육과정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에 응답하여 비공개 교사(59.4%)보다 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

결과의 활용은 학교경영 및 교육과정 개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일선 교사들이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오는 학교간 차별화, 교육수요자들의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평가는 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평가의 결과를 교육현장에 환류(feed-back)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즉, 교육공급자의 자기 반성 이외에도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학교교육의 질에 대한 올바른

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보다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성과에 대한 평가

“학교종합평가는 학교의 질적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 “매우 도움을 준다” 2.7%, “상당히 도움을 준다” 38.0%로 전체적으로 40.7%가 긍정적이었고, “거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 54.3%,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5.0%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59.3%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χ^2 검증 결과 성별, 학교 급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8>.

<표 8> 학교 질적 개선에의 성과

[단위: 명, ()는 %]

집단	변인	매우 도움 줌	상당히 도움 줌	거의 도움안줌	전혀 도움안줌	계	χ^2
성별	남자	4(2.7)	64(43.2)	80(54.1)	0(0.0)	148(100.0)	20.021 *
	여자	3(2.7)	34(30.9)	60(54.5)	13(11.8)	110(100.0)	
현재 직위	교장·교감	0(0.0)	7(70.0)	3(30.0)	0(0.0)	10(100.0)	7.934
	부장교사	1(1.8)	25(43.9)	30(52.6)	1(1.8)	57(100.0)	
	교사	6(3.1)	66(34.6)	107(56.0)	12(6.3)	191(100.0)	
교육 경력	10년이하	1(2.3)	15(34.1)	23(52.3)	5(11.4)	44(100.0)	5.627
	11-20년	3(2.2)	50(37.0)	77(57.0)	5(3.7)	135(100.0)	
	21년이상	3(3.8)	33(41.8)	40(50.6)	3(3.8)	79(100.0)	
학교 급별	초등학교	4(7.7)	26(50.0)	20(38.5)	2(3.8)	52(100.0)	16.052 *
	중학교	1(1.4)	24(33.3)	40(55.6)	7(9.7)	72(100.0)	
	고등학교	2(1.5)	48(35.8)	80(59.7)	4(3.0)	134(100.0)	
학교 소재지	부산광역시	3(2.1)	58(40.3)	77(53.5)	6(4.2)	144(100.0)	1.457
	울산광역시	4(3.5)	40(35.1)	63(55.3)	7(6.1)	114(100.0)	
공개 여부	공개	3(3.2)	38(40.9)	45(48.4)	7(7.5)	93(100.0)	3.170
	비공개	4(2.4)	60(36.4)	95(57.6)	6(3.6)	165(100.0)	
계		7(2.7)	98(38.0)	140(54.3)	13(5.0)	258(100.0)	

* p < .05

“매우 도움을 준다”에 남녀 모두 2.7%, “거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에 대해서 남녀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54.1% vs 54.5%) 반면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에는 여교사의 11.8%가 응답하였으나 남자교사는 전혀 없었고, “상당히 도움을 준다”에 남교사의 43.2%, 여교사의 30.9%가 응답하여, 학교종합평가가 학교의 질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남교사 보다 여교사가 더 부정적이었다.

학교 급별로는 “거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와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에 응답한 부정적 반응은 초등학교 교사의 42.3%, 중학교 교사의 65.3%, 고등학교 교사의 62.7%로 나타나서 초등학교 교사 집단이 가장 덜 부정적이었다.

학교종합평가가 국가수준에서의 학교교육의 질과 교육정책 효과 진단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4.7%, “거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 53.1%로 응답하여 57.8%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상당히 도움을 준다” 40.3%, “매우 도움을 준다” 1.9%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교장교감의 70.0%, 부장교사의 54.4%가 “상당히 도움을 준다”와 “매우 도움을 준다”에 반응한데 반해서 교사의 37.2%만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직위가 낮을수록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학교종합평가가 학교 내외 구성원들의 정보 교류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에 6.6%, “거의 도움을 주지 않는다”에 54.3%로 응답하여 60.9%가 부정적으로 반응하였고, “상당히 도움을 준다”에는 36.4%, “매우 도움을 준다”에는 2.7%가 응답하였다.

초등학교 교사의 55.8%, 중학교 교사의 37.5%, 고등학교 교사의 33.6%가 “매우 도움을 준다”와 “상당히 도움을 준다”에 응답하여 초등학교 교사 집단이 가장 덜 부정적이었다.

교사들은 학교종합평가제도가 학교 질적 개선에 있어서의 성과, 교육정책 효과 진단에 있어서의 성과, 학교 내외 구성원들과의 정보교류에의 성과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학교종합평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평가의 본질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부족, 평가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그에 따른 과잉반응으로서의 반감, 평가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 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종합평가제도를 교육의 질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본질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교종합평가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준비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관심이 조화롭게 이루어 지는 것이 성공적인 학교종합평가의 관건이 될 것이다.

5.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

학교종합평가의 문제점으로는, “면담과 수업관찰로 압박감과 부담감을 준다”에 23.3%, “학교 종합평가 결과 활용이 미흡하다” 19.0%, “학교의 특수성으로 평가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17.2%, “현장방문평가 시 일정이 길어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 13.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다” 10.1%, “평가준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9.9%,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7.5%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종합평가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결과의 효율적 활용” 17.1%, “전문적인 질 높은 평가

위원 확보"와 "학교 특징이 드러나는 평가보고서 작성"에 각각 14.5%, 단위학교자율권 강화 12.4%, 학교평가의 부정적 인식 개선 11.2%, 교육여건 격차해소 10.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 평가단 일정 단축 6.6%, 학교평가 상설 전문기구 법제화 6.1%, 평가단 규모 축소 3.6%, 평가단 규모 확대 0.4% 등으로 응답하였다.

질 높은 평가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전임 평가위원 제도 도입에 33.3%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평가위원 상시 운영 17.4%, 평가위원 연수 프로그램 상설 운영 17.1%, 학교평가 연수기관 지정 운영 16.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 평가위원 행정적 지원(9.3%), 평가위원 연수시간 확대(6.6%)에 대해서는 낮은 반응을 보였다.

교사들은 학교종합평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면담과 수업관찰로 인한 압박감과 부담감"에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을 뿐, 전체적으로 보아서 결정적인 문제점이 들어 나지는 않았다. 또 학교종합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의 효율적 활용", "전문적인 질 높은 평가위원 확보"에 "학교 특징이 드러나는 평가보고서 작성"에 고르게 높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질 높은 평가위원 확보 방안으로는 전임 평가위원 제도 도입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6. 공개수업 및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

공개수업과 관련된 문항들에 대해서는 교장·교감 집단에 대해서는 반응을 요구하지 않았다.

공개수업에 임한 준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였다" 12.9%, "평소 보다 조금 더 준비하였다" 63.4%로 응답하여 76.3%가 준비를 하였고, "평소처럼 부담 없이 하였다"에 대해서는 23.7%의 반응을 보였다. 배경 변인간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공개수업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 "매우 부담스럽다"에 20.4%, "상당히 부담스럽다"에 60.2%로 응답하여 80.6%가 이를 부담스러워 하였고, "거의 부담스럽지 않다"는 17.2%,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2.2%이었다. 남녀 교사 집단간에만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교사에 비해서 여교사가 더 부담스러워 하였다. "매우 부담스럽다"에 남교사 22.4%, 여교사 18.2%, "상당히 부담스럽다"에 남교사 46%, 여교사 75.0%가 반응하여 여교사의 93.2%는 이를 부담스러워 하였으나 남교사의 30.6%는 거의 부담스럽지 않거나 (26.5%)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4.1%) 하였다.

해당 교과평가위원의 조언이 개별교사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한다" 65.6%, "매우 공감한다" 5.4%로 응답하여 71.0%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거의 공감하지 않는다"에는 29.0%,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에는 응답자가 없었고 배경변인간의 차이도 없었다.

평가위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다" 68.8%, "매우 높다" 6.5%로 응답하여 75.3%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거의 높지 않다"는 24.7%, "전혀 높지 않다"에는 응답자가 없었고 배경변인간의 차이도 없었다.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에 대해 "상당히 요구된다" 72.0%, "매우 요구된다" 19.4%로 응답하여 91.4%가 전문성을 요구하였으며, "거의 요구되지 않는다"에는 8.6%,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에는 응답자가 없었고 배경변인간의 차이도 없었다.

수업을 공개하고 평가위원과 면담한 교사들은 대부분 공개수업에 대비해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개수업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가위원들과의 공감도는 상당히 높았으며, 평가위원들의 전문성도 상당히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 아주 높았다.

V.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 및 해석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여 시행하였던 학교종합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며, 기존의 학교평가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서 국가수준의 학교종합평가의 확대 실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체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볼 때 교육행정기관과 학교평가기관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는 교육청의 장학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체평가의 성격을 띠는 반면, 국가수준의 학교종합평가는 교육청과 학교간의 관계, 교육정책과 특정 교육청 및 학교와의 관계 등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변화의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도교육청 주관의 학교평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역할정립이 요구되며, 평가 주관 기관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사전 연수의 필요성이 상당히 널리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행 30분 정도의 연수시간을 2시간쯤으로 늘려서 사전 연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연수를 통하여 학교평가활동은 교육활동의 개선을 위한 수단적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의 일부라는 인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정서적 부담감과 평가활동의 질과 관련하여 질 높은 평가위원 확보를 전제로, 평가단의 평가 일정을 현행보다 단축하고 평가단의 규모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평가가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평가전담기관이 주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기관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인 학교평가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양한 학교 유형에 적합한 평가 모형 개발과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평가 기준과 영역, 방법과 절차, 결과 활용 등에 대한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수준의 학교평가 사업의 확대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질 높은 평가위원 확보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평가위원 연수 프로그램 상설 운영, 평가위원 공개 모집, 학교평가위원 활동의 연수 학점화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임 평가위원 제도 도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 개선을 위한 평가 문화의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교직원 협력 체제 강화, 학교장의 경영 개선 유

도, 평가활동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학교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평가 결과의 적극적인 공개와 효율적인 활용 체제 확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결과 공개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목적도 중요하므로 학교평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결과의 적극적 공개가 필요함을 널리 인식하게 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평가활동의 질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평가 기구의 법제화 추진, 학교경영 효율성 제고, 교수·학습 질 개선과 수업중시 풍토 조성, 학교별 특징이 잘 드러나는 형태로의 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많은 예산을 들여 국가수준의 학교평가를 시행하였으나 결과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비용에 따른 효과성에 의문이 남는다. '누구를 위한 평가인가'를 생각해 보면 학교종합평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진단'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컨설팅 사업이 강화·확대되어야 진정한 학교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연구는 학교종합평가를 받은 6개교의 교사들로 한정되었고, 특히 교장·교감의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들은 학교종합평가 그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는 것도 이러한 평가 실제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태중, 한국에서의 학교평가: 비판적 검토, 학교평가 효과성에 관한 국제 세미나 발표 원고, 한국교육개발원, pp. 197~212, 2000.
- 곽병선, 한국 교육에서의 학교평가 노력, 학교평가 효과성에 관한 국제 세미나 기조강연 원고, 한국교육개발원, pp. 1~17, 2000.
- 곽병선, 학교종합평가 결과보고와 정책제언, 학교종합평가 결과 발표회 자료집 개회사, 한국교육개발원, pp. 1~3, 2001.
- 구관서, 교육행정기관 평가 준거의 타당성 분석,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0.
- 김광조, 시·도 교육청 평가 2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교육월보, 통권191호, pp. 22~26, 1997.
- 김성렬, 학교자체평가 모형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1995.
- 김승호,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종합평가, 교육개발, 제26권 제1호, 통권126호, pp. 92~95, 한국교육개발원, 2001.

- 김정원, 단위학교 교육개선 지원을 위한 질적 학교평가모형: 상호정보제공형 학교평가, *교육학 연구*, 한국교육학회, 제39권 제1호, pp. 217~248, 2001.
- 박종렬, 학교평가 결과의 효율적 활용, *교육행정학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6권 제2호, pp. 184~199, 1998.
- 백순근, 시·도교육청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아시아교육연구*, 제3권 제2호, pp. 135~151, 2002.
- 서정화, 한국교육에서의 학교평가에 관한 토론, 학교평가 효과성에 관한 국제 세미나 토론 원고, 한국교육개발원, pp. 221~226, 2000.
- 오진석·최윤도, 학교자체평가연구(1),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87-33, 1987.
- 유균상, 학교종합평가 시범 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보고, 학교종합평가 결과 발표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pp. 3~10, 2001.
- 유현숙·김혜숙·김홍주, 초·중등학교 기관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6-6, 1996.
- 유현숙, 초·중등학교 평가체제, *교육행정학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6권 제1호, pp.35~73, 1998.
- 유현숙·한유경·김홍주·박영숙·김혜숙·백순근·김재춘·김규태, 서울특별시 초·중등학교 및 지역교육청 평가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97-14, 1997.
- 이상갑, 학교종합평가 결과보고와 정책제언, 학교종합평가 결과 발표회 자료집 축사, 한국교육개발원, pp. 4~5, 2001.
- 이인효·임연기·김홍원·김양분, 국가수준의 초 중등학교 학교평가제도 도입 및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98-40, 1998.
- 이인효·김양분·이종태·류방란·김정원, 학교종합평가모형의 현장적합성 검증을 위한 고등학교 모의평가 실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99-35, 1999.
- 정원구, 학교종합평가의 목적과 새로운 방향, 부산교육, 부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2001년 봄호, 통권 제297호, pp. 197~205, 2001.
- 정태범, 교육(행정)기관 평가체제 진단, *교육행정학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6권 제1호, pp. 9~34, 1998.
- 조성일·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론, 서울: 양서원, 1998.
- 진동섭, 학교장과 학교평가, *교육행정학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교육행정학회, pp. 223~238, 2001.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종합평가 결과 발표회 개최 보도자료, 2000. 11. 23, 2000.
- 한국교육개발원, 2001년 KEDI 학교종합평가 안내, 중학교종합평가위원 워크숍 자료, pp. 3~

24, 2001a.

한국교육개발원, 남천중학교 종합평가보고서, 학교평가 SE 2001-19, 2001b.

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학교종합평가 편람, 연구자료 RM 2001-42, 2001c.

한국교육개발원, 2002년 KEDI 학교종합평가사업 추진 계획, 2002년도 시·도교육청 학교종합평가 관계자 연찬회 자료집, pp. 11~29, 2002.